



구기태

나에게 맞는 Peri-implantitis 치료법 -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장기적 성공률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템플대학병원 치주과 전공의 과정
-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
- 삼성의료원 치주과 임상전임강사
-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 교수
- 현재 Osteology Foundation Expert Council 임원
- 현재 ITI Fellow
- 현재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국제이사

임플란트 표면의 세균막 형성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서 염증 병소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선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고, 이 병소는 초기에 상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결합조직에서 일어나며 많은 면에서 인접 자연치의 치은에서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도 밝혀졌다. 변연 하방에 세균막이 계속 존재할 경우 임플란트 주변 점막에서의 병소는 종종 경조직을 포함하여 하방으로 퍼져나가며, 다양한 정도의 골 소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임플란트의 소실을 야기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현재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알고 있는 정확한 정의와 치료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상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나에게 맞는 Peri-implantitis 치료법-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장기적 성공률, Peri-implantitis와 peri-implant mucositis의 차이점, surgical 과 non-surgical의 경계, non-surgical의 한계, surface decontamination과 re-osseointegration 및 여러 치료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혹은 문헌상에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모르며, 어느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지 알아보고 peri-implantitis의 극복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lecture aims at discussing the technical and biological aspects of peri-implant disease. A thorough review of the literature together with presentations of relevant cases is scheduled to answer the following. One should be able to comprehend the following after the lecture.

- 1) Indications and boundaries of non-surgical and surgical treatment
- 2) Limitations of non-surgical treatment
- 3) Methods to decontaminate diseased surfaces and their literature support
- 4) Factors that influence the outcome of surgical treatment
- 5) Etiology and correlation with Periodontitis patients